# 죄 값의 아메리카노!?

## (요8:1~11)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죄 값의 아메리카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시는 커피를 말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서양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보면, 솥뚜껑만한 손으로 겨우 손끝으로 잡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잔이 있는데 그 잔에다 커피 원액을 따라서 한 번에 마시거나 두 번에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에스프레소는 다른 내리는 커피보다 훨씬 더 곱게 갈아서 9기압의 압력을 가해 커피원액을 뽑아내는데, 커피원액에 있는 기름까지 같이 나와서 위에 거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는 그 거품을 먼저 맛보면서 거품 밑에 있는 커피의 원액을 한 입에 털어 넣든지, 아니면 두 번에 나눠 먹든지 합니다.
이 에스프레소가 하도 쓰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커피점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시키면, 우유 30ml와 설탕 5그램 그리고 물을 같이 준다고 합니다.
너무 쓰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마신 다음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우유 마시고, 너무 써서 설탕을 먹고… 뭣 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여기에 물을 타서 묽게 해서 먹는 게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런데 죄 값의 아메리카노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 쓰디 쓴 원액을 두 배로 늘려서 더블샷으로 마시는 것처럼, 쓰디 쓴 죄 값은 언제나 에스프레소로 남아있지, 죄 값에 물을 타서 에스프레소 같은 것이 아메리카노가 되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그잔에다 에스프레소 조금에 물을 잔 하나만큼 타는 거거든요? 그런 죄 값은 없다는 얘기에요, 희석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명한 본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정죄를 당하는 입장이 될 때는, 나의 죄가 드러났다든지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당해야 될 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내가 정죄를 해야 되고 심판하고 싶은 입장에 설 때는 참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고 답답한 말씀입니다.
좀 시원하게 정죄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거 나쁜 놈이다, 저런 놈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시원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걸립니다, 시원하게 정죄를 못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보다 윤리적인 면에서 율법적인 면에서 더 나은 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양심에 가책을 받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에 발각되지 않았다고 그저 안심하고, 안심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눈에 비친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신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으로 '이 여자를 끌고 오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 죄를 땅바닥에 쓰셨다, 그런데 첫 번째 쓸 때는 자기의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익명으로 죄의 항목을 쓰시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두 번째 일어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니까 그때 뜨끔해서, 또 다시 계속 땅에다가 죄목을 써나가시니까 그걸 보고 가책을 받아 다들 떠났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아무런 더 나은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나서,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죄 값이 내 마음 안에서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죄 값이 희석되면서 죄질도 내 마음에 아메리카노가 돼버리는 겁니다.
죄의식 자체가 아메리카노가 돼버립니다.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 값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값이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면 우리가 지은 죄 값이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니까 우리의 죄 값은 희석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를 아예 용서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머그잔 하나 정도의 물을 붓는 건데, 이건 에스프레소에 아예 양동이로 물을 갖다 부어서 에스프레소의 맛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죄 값 자체가 아예 없어져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고귀한 뜻으로 이 여자를 용서하셨지만, 죄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는 이게 악용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일벌백계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방법 아니겠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간음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용서를 해버리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태평양 바닷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를 가라고 하신 것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현장에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죄 값, 에스프레소처럼 돌에 맞아죽는 죽음의 쓴 맛을 겪어야만 되는 죄 값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돌에 맞아죽어야 되는 현장에서 이 여자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남아계셨으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밥 먹는 현장에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밥값을 다 내야 됩니다, 내지 않고는 못가요, 주인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 값을 가지고 온 여자를 그냥 보내시고 결국 주님만 남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결국 그 죄 값을 주님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에스프레소 같이 쓰디 쓴 죄 값은 내가 내 몸에다 새겨 넣었다', 즉 내 몸이 장부 같아서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죄 값은 내 몸에다 새겨 넣었으니까 너는 가라는 뜻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 값을 치를 것이니까 가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에 맞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렇게 하실 결심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범죄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지탄받아야 되고, 사형 당해야 되는 그 모든 현장에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모든 범죄자에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자들의 죄 값을 당신의 몸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쓴 에스프레소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다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도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몸이 있으면서 이 사망의 육체가 내 마음을 끌고 가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나 길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 번 넘어지면 백한 번째 '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범죄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되는 죄 값의 현장에 내가 남아있으니까 너는 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백 번 범죄를 저지른 다음 백한 번째 일어나고, 천 번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또 천한 번째 일어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죄를 범해 놓고 핑계 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리로 점점 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놓고 볼 때 전 세계 사람을 다 통틀어서 제일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현행범인 이 여자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현행범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이 자들이 더 나은 것이 없는 똑같은 현행범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단서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목말라 하고 있고, 건강에 목말라 하고 있고, 취직에 목말라 하고 있고, 결혼에 목말라 하고 있고, 자녀의 형통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목마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목마름을 사탄이 우리 마음이 그릇 해석하게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목마른 줄로 알고, 건강이 없어서 목마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내용적으로 이어서 계속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국을 사랑합니다, 식민지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목말라 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합법적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사업을 잘 해나가면서 이윤을 목말라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키워가면서 형통을 목말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간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마음에 들어와야 될 마음속으로 사업을 들여놓고, 조국이 잘되는 것을 목말라 하며 조국을 마음에 들여놓고, 가정이 잘되기를 바라며 가정을 마음에 들여놓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며 자식을 들여놓는 이것들.
자식사랑이라고 하고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자연인이면 모두가 다 합법적인 경계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하고 있다고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라사랑하면서 죄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과 축구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것에 죄의식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인 한에는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나라사랑도 간음이고 가정 사랑도, 자식사랑도 간음입니다.
합법적인 사업 사랑도 간음입니다.

왜 사업이 잘되면 기뻐하려 합니까?

왜 가정이 평안하면 기뻐하려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업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축구시합 볼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연애할 수 있는데, 왜 연애하면서 기뻐하려 하고, 축구시합에서 한국이 이겨야 기뻐하려 하고, 왜 가정이 평안해야 기뻐하려 합니까?

가정 이전에는 기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잘되기 이전에는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사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마음으로 온갖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간음의 현행범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간음의 현행범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간음은 이런 의미에서의 마음이 저지르는 간음의 현행범들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범죄 중의 하나인 범죄이거나 열매일 뿐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지 않으면 마음이 저지르는 현행범의 죄 값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 값을 내가 내 몸에 새겨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너는 가라!'

이제까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죄의식이 아메리카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의식은 아메리카노가 되어도 내 죄 값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현행범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러워지는 겁니다.

사업 그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가정 그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닙니다, 조국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지면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조국도 더러워집니다.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두가 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까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마음의 간음현행범들이 펼치는 열매들이고 범죄들입니다.
또 율법 십계명 상의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절대로 내 죄의식이 아메리카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워하라,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물 타기 두 가지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죄 값에 대한 의식을 아메리카노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합법적인 이 세상이 정한 법, 십계명 상의 율법, 이거 범하지 않았으므로 내 죄가 아메리카노라는 죄의 의식의 문제, 이것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 값은 율법을 어겼든지 어기지 않았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현행범과 같은 수준인 것을 인정하고, 나도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에스프레소의 죄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 모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나의 죄가 상대화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내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나의 죄의식이 아메리카노가 되어

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윤리적인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죄 값이 현행범의 에스프레소인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시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